

전남, AI 데이터센터 '5조원 시대'…AI 거점 도시 '우뚝'

전남도, 베네포스·대우건설 등 장성·강진군에 조성 협약
해남 솔라시도 기업도시 내 국가 AI 컴퓨팅센터까지 본궤도

전남도가 장성·강진군에 대규모 민간 주도 AI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유치한 데 이어 해남군에 들어설 '국가 AI 컴퓨팅센터' 건립 사업도 본궤도에 올리는 등 '글로벌 데이터 산업의 거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정부의 분산형 데이터센터 활성화 정책에 발맞춰 지역의 풍부한 재생에너지와 산업 입지를 결합한 '전남형 AI 인프라 모델'이 구체화되는 모양새다.

전남도는 지난 16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장성·강진군을 비롯해 베네포스, 대우건설, KT, 탑솔라 등 다수의 민간 기업과 'AI 데이터센터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에는 KG엔지니어링, IPA, 유진투자증권, 시드인베스트먼트 자산운용 등 금융 및 엔지니어링 파트너들도 대거 참여해 AI 데이터센터 구축뿐만 아니라 전후방 연관 산업 생태계 조성에 도움을 모으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장성군에는 2조2000억원을 투입해 200㎿급 데이터센터가 조성되며, 강진군에는 3조 3000억원을 들여 300㎿급 규모의 센터가 들어설

예정이다.

두 곳을 합치면 총 5조5000억원에 달하는 매매드급 투자다. 도는 이번 사업 대상지의 경우 부지 확보 등 핵심적인 사전 절차가 상당 부분 진척된 상태여서 조기 착공과 가동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오는 7월 광주시와의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이뤄진 이번 투자는 시·도·민 모두에게 큰 선물이자 기회"라며 "정부 정책과 부합하는 AI 인프라 육성의 선도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장성·강진군과 긴밀히 협력해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전남 서남권의 미래 지도를 바꿀 해남군 산이면 솔라시도 기업도시 내 '국가 AI 컴퓨팅센터' 조성 사업도 순항하고 있다.

최근 삼성SDS와 네이버, 키카오 등 국내 IT 대기업 관계자들로 구성된 컨소시엄 관계자 50여명은 해남 현지를 찾아 실무 점검을 마쳤다. 이들은 솔라시도 전망대에서 사업 부지를 둘러보고 영암호의 풍부한 용수 공급 능력과 단단한 지반 등 입

지 여건에 만족감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총 사업비 2조5000억원이 투입되는 이 프로젝트는 오는 4월 첫 삽을 떠 2028년 하반기 정식 가동을 목표로 한다. 2028년까지 1만5000장 이상의 최첨단 GPU(그래픽처리장치)를 확보해 국내 기업과 연구기관에 제공함으로써 AI 기술 주권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컨소시엄 자체 출자금 외에 부족한 사업비 1조 7000억원은 정부의 '국민성장펀드' 1호 투자 대상으로 지정돼 조달될 예정이며, 현재 관계 부처와 막바지 협의가 진행 중이다. 전력 공급을 위한 154kV급 변전소 역시 한전 측과 협의를 통해 2028년 4월까지 설치를 완료하기로 했다.

앞서 전남도는 지난 8일에도 한전KDN, 해남군 등과 에너지 특화 데이터센터 협약을 맺은 바 있다. 연이은 대규모 투자 유치는 전남이 데이터센터의 최적지임을 입증하는 결과로 풀이된다.

전남도는 장성·강진의 민간 데이터센터와 해남의 국가 컴퓨팅센터를 양 날개 삼아 전남을 AI 산업의 글로벌 허브로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광주시가 보유한 우수한 AI 인재풀과 전남의 재생에너지·부지 여건이 결합할 경우, 다가올 행정통합의 시너지는 물론 국내 AI 생태계의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것이라는 점에서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어등산 '그랜드 스타필드 광주' 조성 순항…토지비 4차 중도금 완납

신세계프라퍼티, 77억 납부…2030년 개장 목표 올 하반기 첫 삽

광주시의 최대 수원 사업 중 하나인 어등산관광단지 개발 사업이 민간 사업자의 4차 중도금 납부 완료와 함께 본궤도에 안착했다.

18일 광주시에 따르면 '그랜드 스타필드 광주'를 조성하는 신세계프라퍼티가 최근 협약 이행 절차에 따라 토지비 4차 중도금 77억4000만원을 광주도시공사에 납부했다.

이로써 신세계 측은 전체 토지 매입비 860억원 가운데 46%에 해당하는 395억6000만원을 납입했다.

앞서 광주도시공사와 신세계프라퍼티는 지난

2023년 말 유원지 부지 개발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협약 로드맵에 따라 신세계프라퍼티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유원지 부지에 대한 구체적인 밀그림을 그리는 세부 설계를 매듭짓을 방침이다.

이어 하반기에는 조성 계획 변경 등 필요한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기반 시설 공사에 착수를 끝내고자 한다.

시민들의 이목이 쏠린 핵심 앵커 시설인 복합쇼핑몰 '그랜드 스타필드 광주'와 휴양 콘도미니엄 등은 오는 2030년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프리미엄 숙박 시설인 레지던스는 관광객 수요 추이에 맞춰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완공한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광주시는 어등산관광단지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체류형 관광(스테이케이션) 명소'로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이승규 시 신활력주진본부장은 "어등산단지가 단순한 쇼핑 공간이 아닌 문화와 레저, 휴양이 결합된 서남권 최고의 관광 거점이 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며 "구체적인 개발 계획이 확정되면 지역 소상공인과의 상생 협력 방안도 꼼꼼히 챙겨 지역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화순 동복댐 수질 'AI 로봇'이 지킨다

광주시, 수질관리 로봇 도입…3억8500만원 투입

광주시가 식수원인 화순군 동복댐에 인공지능(AI) 수질관리 로봇을 도입한다.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과 흉수 등 극한 기상 상황에 대비하고, 더 맑은 원수를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총사업비 11억5500만원을 들여 2027년까지 동복댐에 'AI 수질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2022년 겪었던 극심한 가뭄과 최근 빈번해진 국지성 호우 등으로 체계적인 원수

관리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추진됐다.

시는 올해 본예산에 3억8500만원을 확보해 AI 수질관리 로봇 1대를 우선 도입하고, 운영 성과를 분석해 내년까지 총 3대로 확대할 계획이다.

도입되는 AI 로봇은 화순군 동복댐 취수구 주변을 맴돌며 수심별 수질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한다.

이를 통해 용연정수사업소는 가장 깨끗한 물이 있는 수심으로 취수구 위치를 조정해 정수 비용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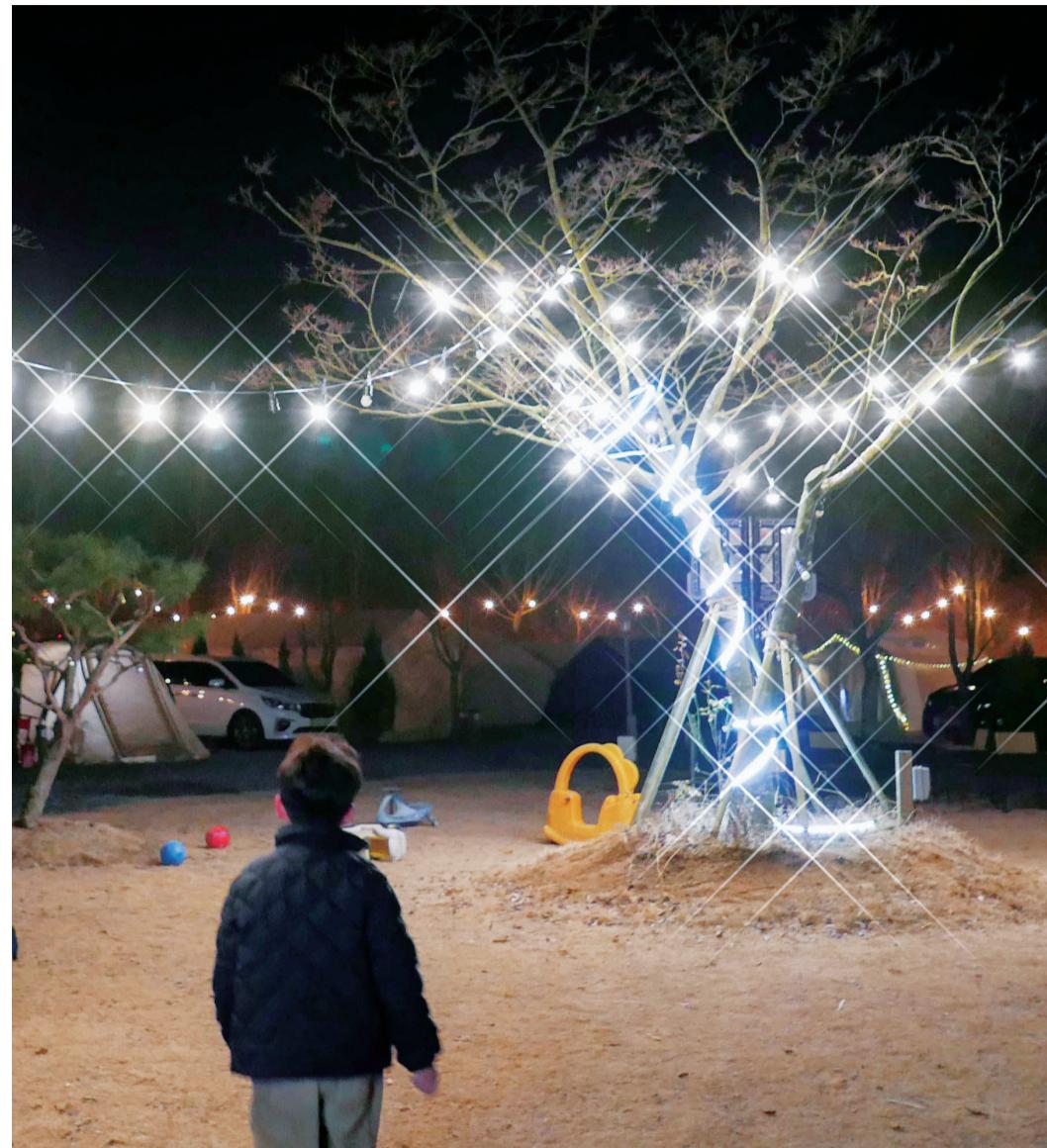
절감하고 양질의 수돗물을 생산할 수 있게 된다.

AI 로봇은 집중호우 때면 유입되는 쓰레기나 폐유 등 부유 오염원을 감지해 알리고, 녹조가 발생하면 자체 필터 시스템을 가동해 하루 최대 1끼까지 녹조를 제거할 수 있다.

정밀한 수심 데이터 분석을 통해 실제 저수량을 산정함으로써 가뭄이나 흉수 시 물 운영 판단을 돋는다.

광주시는 로봇 도입으로 기존에 인력에 의존하던 현장 점검을 최소화해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비상 상황 시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유지관리비는 로봇 1대당 연간 2000만원 선으로 예상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나주서 즐거운 캠핑

17일 오후 나주 다시면의 한 캠핑장에서 시민들이 화려한 조명으로 장식된 나무 아래 텐트를 치고 겨울 캠핑의 낭만을 즐기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 무주택 청년 주거비 걱정 끝다

시, 보증금 이자 2% 지원…4년 최대 800만원 절감

주거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무주택 청년을 위해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청년 맞춤형 주거 사다리'를 놓는다.

광주시는 19일부터 '청년 맞춤형 주택 임차 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사업은 목돈 마련이 힘든 청년이 전세나 월세 보증금을 은행에서 빌릴 때, 발생하는 이자의 대부분을 시가 대신 내주는 것이 물자다.

지원 대상에 선정되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통해 광주은행에서 2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1억원(보증금의 90% 이내)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 금리 연 2.5% 가운데 광주시가 2%를 지원해, 청년은 연 0.5%만 부담하면 된다.

기본 2년에 1회 연장이 가능해 최장 4년 동안 최대 800만원의 이자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올해 모집 인원은 신규 계약자 50명과 간신 계

약자 20명 등 총 70명이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광주시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이다. 소득 기준은 대학생(대학원생 포함)과 취업준비생의 경우 부모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직장인이나 사업자는 본인 연소득 4500만원 이하, 기혼자는 부부 합산 6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은 '광주청년통합플랫폼'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다. 시는 서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2월 20일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하고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권윤숙 시 청년정책과장은 "올해는 취업준비생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본인 소득을 기준으로 신청 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는 등 지원 문턱을 낮췄다"며 "청년들이 주거비 부담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체감도 높은 정책을 지속해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문화신협 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금융 다채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

출자금 비과세 한도 상향
개인당 2천만원 까지 완전 비과세

광주문화신협



자산규모
1조 5천억원

창립 이후
30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9% 이상 지역사회 환원

광주문화신협
대표번호 1644-7990

· 본점 · 여신사업부 · 양산지점 · 운암지점 · 매곡지점 · 첨단지점 · 동광주지점 · 문흥지점 · 동림지점 · 각화지점